

# 기도학교 2 강-하나님은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 고백하기 ]

기도생활 성공하면 신앙생활 성공하고, 신앙생활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 암송구절 ]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 간 증 ] - 빈 그릇 앞에서 조지 물러의 식사기도 >

영국의 조지 물러는 50만 번 기도하고 50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부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간구하여 신앙으로 세계에서 첫째 되는 고아원을 세워 일생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길러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식당 담당자가 물러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인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물러의 대답은 엉뚱한 것이었습니다. “염려할 것 없네. 식사 종을 치고 아이들을 식당에 모으게.” 종을 치자 아이들이 우르르 식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만 즐비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물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 숙여 일용할 양식을 주실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드립시다.” 아이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빈 그릇을 놓고 무슨 기도야?” 이 소리를 들은 물러는 다시 말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자 물러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낯선 신사가 인부들의 손에 큰 통 몇 개를 들려 들어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물러 선생님, 오래 전부터 무엇인가 도와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오늘에야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통들 속에는 빵, 야채, 고기 등의 음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빈 접시를 놓고 기도를 드렸던 물러의 믿음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1. 냉혹한 영적인 현실을 이해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단순히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도는 특별히 매일 매일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도에는 구하는 것 이상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 ①기도는 성도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며 무장시킴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 ②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생활이지만, 또한 상대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면서, 또한 상대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귀의 시험과 공격에 패배하며 고통당할 것입니다.

1)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롬 7: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게 됩니다.

【벧전 5:8-9】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3)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문화, 사상, 종교, 사람, 권세)이 있습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않는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눅 21: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롬 12: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골 4:2】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엡 6: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매일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절제와 근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든 기도의 생활을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 ① 쉬지 않고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 ②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의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 ③ 성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성도의 신앙의 나태를 방지하고, 더욱 강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3.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하십니다.

**[시 127: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을 들어왔으나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습니니다.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군대가 지켜도 사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야 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야 하며, 가족도 하나님이 지켜야 합니다. 또 성도님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켜야 하며, 직장도 하나님이 지켜야 유지됩니다. 모든 것을 사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감사하며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눅 22: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으시면 가롯 유다처럼 됩니다.

**[눅 22:3]**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 13: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롯 유다는 자신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민족과 가난한 자를 위해 일은 하지 않고, 비싼 향유로 발을 닦는데

가만히 두라고 하면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 발을 닦는데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만약 유다가 사탄이 자기 마음 속에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쫓아냈을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 쫓아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사탄을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 주셔서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이 사탄에게 속고 있는 줄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사탄에게 속아 교회에서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처럼 자신이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피해를 주고 있으며, 때로는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말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유다처럼 멸망당할 때에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야 큰 시험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눅 22:31-32] (;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을 때 사단이 베드로를 가지고 시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사단이 시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받은 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물질을 사용해야 옳은 것입니다. 주신 복을 욕심 부려서 지켜 달라고만 하지 말고 사단이 빼앗아 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3) 자신의 욕심을 버려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주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시험이 적게 옵니다.

**【약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4)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생활에 시험이 들면 신앙이 급속도로 떨어져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 생활 가운데 부부간에 시험이 들면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시험이 있으면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분야에서 시험이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5) 세상의 것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40-41】 (:40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 26:74-75】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벧전 5:8-9】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 통성기도 ]**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